



◆ 금강소나무와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숲을 국민휴양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영돈)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 7월부터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등 국유림내 아름다운 숲 4개소를 국민들에게 개방과 함께 숲 해설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에 발 맞추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숲을 소개하고 산림내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의 문화재용목재 생산림 등 아름다운 숲(4개소)을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숲은 500여년 된 아름드리 할아버지 금강소나무들이 뽕뽕이 둘러싸여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숲으로 유명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 잘 자라는 금강소나무 집단 분포지역들이다. 또한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말마다 숲 해설가(안내원)를 현지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여행전 사전 예약을 하면 약속된 장소에서 현지 안내를 받는 등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 숲 해설가 예약 〉

-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 054)783-7074, 울진국유림관리소
- 영덕군 영해면 창수리 “창수전시림”
☎ 054)732-1604, 영덕국유림관리소
-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미림단지”
☎ 054)732-1604, 영덕국유림관리소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문화재용목재 생산림” ☎ 054)633-7278, 영주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아름다운 숲 개방을 계기로 산림개방과 보존을 조화 있게 운영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림내 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하여 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휴양 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관계자는 힘주어 밝혔다.

- 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7761)

◆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 사무국 개소

국립산림과학원은 범국민적인 관심에 힘입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반만년을 함께해 온 소나무를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지켜내기 위하여 지난 4일 나무병원동에서는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 사무국 개소식과 함께 연구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 있었다.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은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총 5개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에 200여명의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간 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과기부에서 작년 연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기술관리센터(ARPC)에서 사업단을 공모하여 지난 6월 28일 최종 협약하게 되었다. 연구사업단은 3년여에 걸쳐 소나무재선충병 발현기작 구명 및 방제체계 개발, 생물검정법 및 방제제 개발, 진단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매개충 실용적 방제기술 개발, 방제생리기전 구명 및 방제후보물질 개발 등 5개 핵심과제를 축으로 소나무재선충 박멸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력 연구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특히, 연구 인력의 구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전담해온 국립산림과학원이 사업단의 중심이 됨으로써 연구의 노하우

와 효율적 관리라는 이점을 극대화 시켰다.

또한, 꼬마선충의 노화조절인자인 다우몬을 최초로 발견하고 생리적 기능을 밝힌 논문을 2005년 2월 권위있는 과학잡지인 네이처紙에 실은 연세대학교 백용기 교수팀,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의 분자생물학적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서울대학교 이시혁 교수팀을 비롯한 학계와,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LG생명과학 등 국내 정상급 연구소와 산업체가 참가하여 소나무재선충 연구의 기초부터 실질적인 방제를 위한 활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최상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었다.

나무병원동의 2층에 위치한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각 핵심/세부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연구기획,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사무국장, 연구간사, 연락간사, 연구기획, 과제관리, 예산사무 등 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날 신상철 사무국장은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혁신적 행정 지원에 힘입어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이 힘찬 앞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하는 그날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지금과 같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정찬식 (02-9612-655)

◆ 2006년도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알림(제2006-41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6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붙임 첨부자료와 같이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6-41호)하였기 알려드리니,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장석규
(042-481-4209)

◆ 홍릉수목원에서 시민 공개강좌 실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산림과학기술 연구 성과 중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시민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200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민 공개강좌는 일반 시민들에게 연구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나무와 산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 홍릉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2006년도 시민 공개강좌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산림과학관에서 실시한다. 7월 16일에는 특용수와 박형순 박사가 「나무의 고마움과 전원속의 조경수」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8월 이후에는 산림평가과 이경학 과장이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협약, 그리고 산림」을, 목재가공과 이동흙 박사는 「목재가 인간의 정서안정과 신체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산림병해충과 김경희 박사는 「나무의 병」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나무이름의 유래, 녹색 댐, 버섯의 세계, 산림과 지구환경 등의 강좌를 실시하여 홍릉수목원을 찾은 초등학생은 물론 산림과 임업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고른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연구 성과를 대학 및 교육기관,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산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으나 전문적인 주제와 시간적인 제약 등 일반시민들과는 동떨어진 연구자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개강좌는 일반시민에게 연구 성과를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연구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림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3년부터 매주 일요일 홍릉수목원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산림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이제 홍릉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은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강좌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통하여 국민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갈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서무과
안진수 사무관(02-9612-512)

◆ 리기다소나무림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

「리기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 모델림 조성사업」추진

과거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연료림 조성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식재했던 리기다소나무가 이제 그 별기령이 지나 점차 쇠퇴해가고 있어 체계적인 리기다소나무 벌채·갱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리기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 모델림」조성사업은 국내 펄프·보드업체에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리기다소나무 단순림을 국민이 참여하고 아끼어 사랑받는 숲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인석)는 리기다소나무림을 산업용재 공급과 연계하여 벌채 이용하고 경제적·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량 경제림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일대에 「리기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 모델림」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리기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 모델림」은 별기령이 지난 리기다소나무림을 환경친화적으로 벌채·갱신후 숲가꾸기를 통해 경관림 및 경제림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지역의 도로 및 철도의 가시권 지역 산림 25ha에 3개년('05년~'07년)에 걸쳐 조성된다.

과거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연료림 조성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식재했던 리기다소나무가 이제 그 별기령이 지나 점차 쇠퇴해가고 있어 체계적인 리기다소나무 벌채·갱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리기

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 모델림」조성사업은 국내 펄프·보드업체에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리기다소나무 단순림을 국민이 참여하고 아끼어 사랑받는 숲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리기다소나무 벌채후 이루어지는 후계림 조성은 지역 환경단체 및 임업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지를 감안한 산주의 희망에 따라 수종을 결정하되, 지역적 권장수종을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산림조합 대행사업 등과 연계하여 벌채·수집, 목재공급 등 조림 일관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리기다소나무 벌채·생태조림 모델림 조성사업」을 건전한 산림생태를 유지,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김백수
(063-537-8694)

◆ “아름다운 숲”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주 5일 근무제와 사회·경제적 성장과 교통의 발달로 국민들의 여가가 늘어나고 숲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함에 따라 맑은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창수령 아름다운 숲』과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금강소나무 숲』을 개방 한다고 밝혔다.

“창수령 아름다운 숲”은 조림권장 수종(가래나무외 13종)을 시범조림하여 국유림 경영 시범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조성된 숲이며, 본신리 금강소나무 숲은 옛부터 잘 보존 관리되어 미립단지로 지정된 숲이다. “아름다운 숲”에는 탐방로가 있어 산책하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숲 해설가(안내원)를 현지에 배치하여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혜택, 금강소나무 소개등 학습의 장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아름다운 숲



개방을 통하여 산림의 보존과 개방을 조화있게 운영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휴양욕구 충족 및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며, 연차적으로 숲 탐방로를 확충하여 보다 편안하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약문의 전화 : 054)732-1604)

● 자료문의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윤현정 054-732-1603

◆ 8월에 노랑색 무궁화 꽃을 피어 “노랑무궁화” 라고도 부르는 『황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은 『8월의 나무와 풀 그리고 곤충』으로 8월에 노랑색 무궁화 꽃을 피어 “노랑무궁화”라고도 부르는 나무인 『황근』과 초롱등 모양의 남보라색 꽃을 피우고 우리나라 특산이자 희귀식물인 『금강초롱꽃』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원한 파도와 함께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바닷가가 피서객으로 활기를 찾는 8월이다. 여름 바닷가에서 즐기는 파도타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척 즐거운 놀이이다. 식물 중에도 파도타기를 좋아하는 식물이 있다. “노랑무궁화”라고도 부르는 “황근”이란 식물이 있다. 황근의 종자는 염분에 강할 뿐만 아니라 물에 뜨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떠돌아다니다 육지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자생지를 만들어가는 해류에 의한 종자산포식물이다. 8월에 남쪽 바닷가에서 노랑색 꽃을 피우는 황근을 8월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아욱과에 속하는 황근은 제주도와 전남 완도의 바닷가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 높이 1-5m정도까지 자라는 낙엽성의 작은키나무이다. 꽃봉오리는 가지 윗부분 잎겨드랑이에 하나씩 달리고 6월부터 8월까지 아랫부분부터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면 선명한 노랑색 꽃을 피운다. 연중 꽃의 피는 양은 많지만 꽃 한 송이의 운명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하루꽃(一日花)이다. 열매는 8-10월에 성숙한다. 황근(黃槿)이란 “노랑 무궁화 꽃이 피

는 나무”라는 의미로 한자를 붙인 이름이다.

쓰임은 관상으로 쓰인다. 황근의 꽃은 선명한 노랑색 꽃잎에 중심부의 빨강색이 조화되어 귀여운 느낌을 주는 나무이다. 또 꽃의 크기도 지름이 5-8cm정도로 큰 축에 들고 6-8월까지 꽃이 오랫동안 피며 꽃피는 양도 많은 장점이 있어 관상용으로 적합한 나무이다. 다만 추위에 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겨울에 6℃이하로 내려가는 지방에서는 겨울나기가 어렵다. 남부지방에서는 정원수로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으며 염분에 강한 특징을 이용하여 해안지대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수와 해안 경관용으로 심어도 좋다. 제주에서는 질긴 줄기껍질로 밧줄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황근이 꽃이 피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임을 짐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달의 풀로는 8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무렵, 옛날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었던 초롱등 모양의 연한 남보라색 꽃으로 마지막 더위를 식혀주는 우리나라의 특산 야생화인 “금강초롱꽃”을 선정하였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금강초롱꽃은 경기와 강원도의 해발 800m이상 되는 높은 산의 중턱과 능선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는 더덕과 같은 덩이뿌리이다. 꽃은 8~9월에 연한 자색 또는 보라색으로 피고 열매는 9~10월에 성숙된다. “금강초롱꽃”라는 이름은 꽃의 모양이 마치 초롱등을 연상케 하는 초롱꽃과 비슷하고 일본 학자인 Nakai에 의해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지역이름의 접두어를 앞에 붙여 “금강초롱꽃”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금강초롱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고 희귀식물이라는 귀중한 몸으로 자생지에서의 잘 보전해야 할 식물이다.

쓰임은 관상과 약용으로 쓰인다. 잎과 줄기는 흠뜨려짐이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자라고 8월에 줄기의 끝부분에서 피어나는 꽃은 초롱의 독특한 모양으로 야생화 애호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식물이다. 분화용 또는 석부용으로 심어 감상하기에 좋다. 이른 봄에 돌아난 어린잎

과 줄기는 다른 초롱꽃과 식물들처럼 나물로 식용이 가능하고, 뿌리는 민간에서는 경풍, 한열, 편도선염, 인후염 등에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해 쓰기도 한다.

● 문의 : 국립수목원 식물보전과 김재현 (031-540-1057)

◆ 수목과 함께하는 안식처 발견!!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대 국유림이 새로운 장묘방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목장림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에서는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묘방법인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리적 조건(소요시간, 도로의 접근성, 인구분포), 입지적 조건(일단의 면적, 수목장림 조성 가능면적, 방향, 경사도, 조망권) 임상별 조건(혼효율, 영급, ha당 추모목 본수)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충주 천등산 임도변으로서 지형이 완만한 편이며, 기존 소나무 임상과 전나무 수하식재지로 임상도 수목장림 대상지로 적합한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충주-제천 간 38번 국도(구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임도도 설치되어 있어 추모목까지의 접근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의 농경지와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연결되어 있어 수목장림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자연친화적인 장묘방법인 수목장림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 : 중부지방산림청 혁신홍보팀 정다움 (041-850-4092)

◆ 나라꽃 무궁화 도심속에 활짝 피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제61주년 광복절을 맞아 무궁화 사랑운동을 통하여 나라사랑, 겨레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나라’와 함께 오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소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무궁화 사랑 대형작품 서명하기, 대형 캐릭터 인형과 사진 찍기, 생활 속 무궁화 찾기, 페이스 페인팅,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어린이들 참여하는 무궁화 꽃누르미, 무궁화 종이접기 등 다채로운 현장 체험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아울러, 무궁화 공예작품 전시와 묘목분양 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퀴즈대회, 시낭송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각 시·도에서 출품한 분화는 ‘서울숲’에서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갖고, 이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30여 점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으로,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우리 무궁화는 다른 유사 종에 비해 꽃이 아름답고 추위에 강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심겨져 있다. 무궁화 품종은 200여 종으로 우리나라서는 70여 종을 개발하였고, 지난해는 가정에서 화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가정 보급형 무궁화 신품종인 「별이」를 개발·보급하여 무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도시숲정책팀장은 ‘서울의 도심속에서 펼쳐지는 금번 행사를 통하여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행사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고 말했다.

● 문의 : 산림청 도시숲정책팀 임상섭 팀장 (042-481-4105)
산림청 정책홍보팀 최관목 계장(042-481-4078)

◆ **가로수가 있으면 도시가 시원하다!!**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어 도시 거주민의 신체적 불편감을 낮춰 줄 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소음완화 등을 통하여 심리적 쾌적함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여름철 한낮에는 가로수가 있을 경우, 가로수가 없는 지역보다 평균 3~7℃가 낮아진다.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는 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증산과정을 통해 일평균 잎 1㎡당 664kcal의 대기열을 제거하는데, 이는 하루 동안에 0.6 l의 수분을 방출하는 것으로써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이외에도 가로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가로수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도 정비사항으로는 과거 가로수를 도로의 부속물로 취급하던 '도로법'과 선언적 내용만 있었던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로 일원화하고, 과거 중앙부처(지방국토관리청 등)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가로수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가로수관리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 개설시 설계단계부터 가로수의 생육공간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산림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가로수를 380km의 도로변에 새로이 심을 계획이다. 또한 가로수의 신규조성 외에도 기존의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추

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08년부터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 외에도 가로수관리청의 합리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전국 가로수 GIS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산림·녹지 관리 차원에서 단절된 도시지역 내의 산림·녹지간 또는, 도시 외곽지역의 산림과 연계되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국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산림청 도시숲정책팀 임상섭 팀장 (042-481-4105)
- 산림청 정책홍보팀 최관목 계장 (042-481-4078)

◆ **[조경학회]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

지난 6월 중앙공무원 임용령 개정(2006년 6월)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직제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경계의 결집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바람직한 직제가 마련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3일(수)에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조경계의 발전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사)한국조경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하셔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참가신청서를 이메일(kila96@chol.com), 팩스(02-565-205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사)한국조경학회 홈페이지(<http://www.kila.or.kr>)에도 공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